

세계 양돈 박람회를 참관하고(V) (무어맨 사료회사 방문)



정 숙 근 박사
(본회 제1검정소장)

〈지난호 146쪽에 이어서〉

3) 양돈기구 제작공장

사료공장 견학을 마치고 무어맨 회사에 속하고 있는 양돈용 기계·기구 제작 공장을 보았다. 이 공장에는 100여명이 2부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며, 주로 양돈용 기계·기구를 고유 모델로 제작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식 조그마한 철공소와 같은 것이 아니라 분만책, 스톨, 사조, 니플, 자돈 육성케이지, 환기시설 외 모든 양돈 관련시설과 기구를 상품으로 제작하고 있었다. 규모가 넓고, 기계화가 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자동차의 부품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공장내부가 무더웠으나 공기도 맑고 매우 쾌적한 환경이었다.

4) 실험 양돈장

무어맨 회사에는 3개의 실험농장이 있으며 150두 규모의(착유우) 젖소연구농장과 150두 규모의 육우 사육농장, 그리고 모돈 240두 규모의 양돈 실험 농장이 있다고 한다. 이들 전체 농장의 면적은 1만8천 정보에 달한다고 하며 우리 일행은 실험 양돈장만을 보았다.

돈사 내부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돈사가 내부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유리로 칸막이를 한 돈사였다. 바닥은 스크트로 하여 분변은 밑으로 자연 낙하되도록 되었으며 분만책, 스톨, 사료자동급여장치 등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이었다. 눈 앞에 보이는 돼지는 순종 또는 잡종이었으며 특히나 수돼지 한마리가 무척이나 매력을 주었다. 아주 긴 체장에 전구에서 후구에까지 잘 발달하고 강인한 허리, 건실한 지체는 욕심이 날 정도였으며, 종돈 구입 가능성을 묻는 사람도 있었다.

5) 대두박 공장

실험 양돈 농장을 견학한 후 무어맨 회사의 대두박 공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었다. 너무나 지친 우리 일행은 대두박 공장에 가서 공장의 외부만을 보고 돌아왔다.

외관으로 본 대두박 공장은 엄청나게 넓은 시설에 미시시피강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각지에서 원료를 배로 싣고와 강의 배위에서 대형수송파이프를 통하여 흡입 운반되도록 되어 있었다.

6) 연구원과의 세미나

무어맨회사 견학을 마지막 코스로서 사료공장 연구원과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 앞서 이 곳(Quincy : 무어맨 회사가 있는 곳)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우리 일행이 지나가야 할 세인트루이스(St. Luis)라는 곳에 폭이 60m나 되는 무지개와 같은 대형 아치형 모형이 만들어져 있고, 그 무지개 모양속에 여러가지 시설이 되어 있어서 많은 관람객이 모여든다고 한다. 그런데 그 크고 높은 무지개 모양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 하는 공법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법은 간단하였다. 무지개 모양을 양쪽에서 만들어 가면서 만든 양쪽 무지개 물체를 양쪽 기둥으로 하여 다리를 놓으면서 수십미터 높이까지 무지개 모양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양쪽의 무지개 모양으로 되어가는 것을 기둥으로 하여 다리를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무지개 모양의 기초가 땅속으로 60m까지 들어가도록 튼튼하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양측을 기둥으로 하여 다리를 놓아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막간의 이야긴가 하였더니,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양돈이 잘 되어 가려면 양돈의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돼지가 먹는 사료의 영양 성분이 완전해야 한다는 것이며, 양돈의 기초가



▲ 세인트루이스의 명물 아치형 다리

되는 돼지의 영양에 대하여 발표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지칠대로 지친 우리 일행에게 관심을 주려고 하는 재치있는 설명이었다.

무어맨회사 연구원이 근래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제목은 “왜 돼지의 영양이 중요한 것인가”였다. 돼지는 그 크기에 따라서 영양분의 소화기관 길이와 소화 시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소화기관이 짧으면 소화되는 시간이 짧아지고 영양성분의 이용 효율도 떨어진다고 한다 (<표 1> 참조).

<표 1> 돼지의 소화기관

구 분	체 중(kg)	
	30	103
위 (胃)	0.21kg	3.40kg
소 장(小腸)	0.70	14.10
대 장(大腸)	0.10	10.10
장내사료 통과시간		
4 주 령	14~24시간	
6 개 월 령	20~53시간	

돼지의 사료는 소화가 잘 되게 해야 하고, 맛이 있으면서 적은 양을 자주 먹이도록 하는 것이 사료제조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무어맨회사에서는 생후 7, 14일 등 일령에 따라서 실용화 할 수 있는 소위 조기이유(off side nursing) 사료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으로 우리 일행 19명은 공식일정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덴버에 이르렀고, 덴버에서 비행기를 갈아 타고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다달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짧은 시간에 시내 관광을 하였고 다음 날에는 퍼블해안과 17mile drive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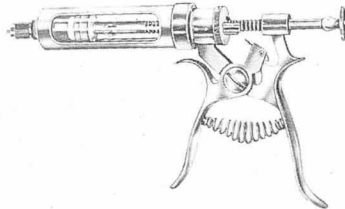
는 세계 제1골프장 주위의 관광을 마치고 6월 18일 김포공항에 돌아왔다.

끝으로 미국에 도착하여 떠날 때까지 수행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편의를 돌보아 준 샌프란시스코의 전선생님과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샌트루이스에 이르기까지 6일간을 안내와 통역 및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우리 일행의 편의를 도와준 Thomas M. McKenna 사장이하 무어맨회사에 심심한 감사를 올리는 바이며, 특히 Jim Beng씨(전무이사)와 Ross G. Moore씨(총무부장)에게는 그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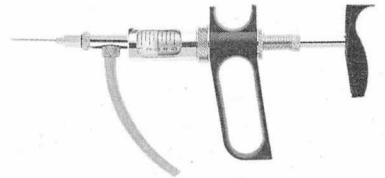
각종 주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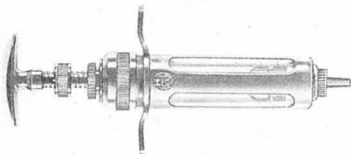
① FERROMATIC 주사기(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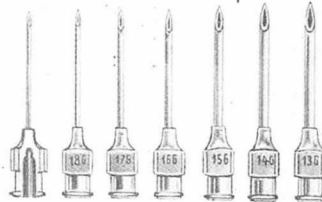
② REVOLVER 주사기(3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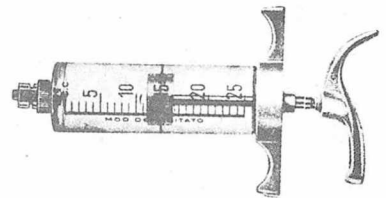
③ SOCOREX 연속주사기(1-5ml)



④ 철제주사기(10, 2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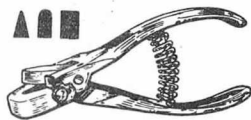
⑤ HENKE 주사침



⑥ P.V.C 주사기(반영구)



⑦ 적외선전구(수입품)



⑧ 이각기(귀절단)

KW 경화축산

주소 : 서울 · 마포구 동교동 164-31

☎ 338-2548, 7013, 338-5510, (야간) 749-1465

FAX : (02)338-1020, (0349)32-1787